

생존권 사수와 민주주의 수호 그 중심에 용산이 있다



▲ 용산참사 유가족들이, 용산참사 5년 추모대회에서 경찰에 의해 영정 사진이 훼손되자 주저앉아 절규하고 있다.



지난 6월 20일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5년 추모대회 후 용산참사현장에서 용산역까지의 행진 과정에서, 경찰의 제지로 철거민 열사들의 영정사진이 훼손되었다. 경찰은 이날 영정사진을 복구해 온다고 해 놓고, 기다리던 중에 유족들을 강제로 끌어냈다. 이 과정에서 유가족 4명과 추모미사를 드리시던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전종훈 신부님이 실신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용산참사 160여일, 그리고 민주주의

용산에서 철거민 다섯 분이 돌아가신 지 벌써 160여일이 지났습니다. 무려 여섯 달이 되어 가지만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명박은 용산 살인진압에 '면죄부'를 주려했던 서울지검장 천성관을 검찰총장에 임명했습니다. 천성관은 수사기록 3,000쪽을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거부하고, PD수첩의 수사과정에서 개인 사생활을 유출시킨 서울지검의 수장이었습니다. 대학교수, 종교인, 교사를 비롯한 노동자들, 학생들의 시국선언을 모르쇠로 일관하는 이명박 정부는 다수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은 단독국회를 소집했고, MB악법과 비정규 악법의 개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생존권이 민주주의

시국선언이 줄을 잇고 '민주주의를 지키자'는 목소리가 드높습니다. 경제위기에서 이명박 정권은 가진 자들을 위해 노동자-서민의 생존권을 말살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260여 곳의 뉴타운 재개발 지역은 건설자본의 이윤 때문에 쫓겨나는 사람들의 비명소리로 넘쳐납니다. 쌍용자동차를 비롯한 수많은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은 해고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노동자들, 철거민들이 죽어 나가는 것입니다. 비정규 악법으로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마저 삭감하자더니 물가인상에도 미치지 못하는 2.7%, 시간당 110원을 올렸을 뿐입니다. 절차적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일하는 노동자들, 서민들의 생존권을 지켜나가는 것이 진정으로 민주주의를 사수하는 길입니다.

민주 수호, 그 중심에 용산이 있다

생존권 사수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투쟁, 그 중심에 용산이 있습니다. 5개월 넘게 수많은 투쟁이 전개되었고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의 시국선언과 기도회에서 보듯이 이 땅의 모든 양심 있는 세력은 용산 철거민 열사의 유가족과 함께 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찰의 탄압과 철거용역업체의 철거 강행에도 굴하지 않는 용산투쟁에 사람들이 다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이 경제위기에서 생존권을 말살당하는 다수 서민들의 모습임이 다시 부

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언을 넘어 행동으로

“시국선언 그런 거 많이 하잖아. 그런데 내 생각에는 ‘유행’처럼 하는 것 같아. 전두환 정권 때에는 시국선언이 행동의 촉매제가 되었지만, 요즘은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어.” 바로 용산 현장에서 미사를 이어가고 있는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신부님의 말씀입니다. 민주주의, 일하는 사람들의 생존권은 꿈도 꾸지 말라는 이명박 정부에 맞서 선언을 넘어 행동으로 움직입니다! 노동자-서민의 생존권 사수, 생존권 말살하는 이명박 정부와 가진 자들에 맞선 행동으로 나서야 합니다!